

올 학생인권 실태조사 나서

도교육청, 학생·교원 대상 설문조사…내년 3월 조사결과 공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나섰다. 지난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3조에 따라 학생인권 상황을 알아보고 인권 관련 정책 기초 자료를 모으기 위해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결과 는 내년 3월 공표된다.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2 학

생인권 실태조사는 △2022년 한 해 동안 내가 경험한 인권(침해) △학교에서 공통으로 경험하는 인권(침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권 의식 등 크게 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교원들의 인권침해 및 교육활동 침해 경험에 대한 문항을 추가해 학생인권 뿐만 아니라 교원의 인권실태도 함께 조사한다.

조사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QR코

드나 URL 접속 후 무기명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2022 학생인권 실태조사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인권 의식의 변화 추이를 종합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도가 매우 높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내년 전북교육 인권조례 제정의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교직원수련원 교육가족 힐링 공간 조성

전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원장 김현주)은 연말연시를 맞아 수련원 방문객들이 가족·연인과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가족 힐링 공간을 조성했다.

이에 따르면 개원 후 처음 맞는 연말연시에 많은 교육가족이 수련원을 방문한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해 동안 축적된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내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도록 모퉁이 대형트리를 설치했고 식당에는 아기자기한 장식품을 설치해 사진으로 추억을 담아내고 도란도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단장했다. 또 실외에는 사슴가족·LED 조형·나무뜨개옷 등으로 낮과 밤을 즐길 수 있는 꾸몄다.

한편 교직원수련원은 교육가족의 특별한 추억 만들기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현주 원장은 "교직원수련원 개원 이후 지속적으로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용자들이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육문화회관 이용자들

아동복지시설에 '책 선물'

전주교육문화회관 이용자들이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책 선물을 했다.

지난 16일 회관에 따르면 1년 동안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취감 속 책' 독서인증제 독서 릴레이 운동을 펼쳤다.

독서인증제는 도서관 이용자들이 독서기록장에 독후감을 작성한 후 목표권수 달성에 따라 독서 겨러 상품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4단계(최종단계) 목표 달성 시 본인 이름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책·선·물·책 읽고 선물 받고, 물건 기부하)을 테마로 운영했다.

그 결과, 독서 인증제 최종 4단계까지 도달한 22명의 이용자 이름으로 호성보육원과 삼성휴먼빌 각각 정기간행물 1년 구독권과 과학 학습 도서 6권을 전달했다.

이현규 관장은 "우리 도서관에서 기부한 도서가 원생들에게 잘 활용되길 바라며, 더불어 경제성능장에 학생들에게도 맞춤형 독서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콜드스타트 문제해결 위한 선호도 전과 적용 연구 '우수'

전북대 류덕산 교수, 학술연구지원 우수성과 50선 선정



전북대학교 류덕산 교수(소프트웨어 공학과)가 제 1저자로 참여한 연구가 2022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 사업 우수성과 50선(이공계분야 20선)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연구 제목은 '콜드스타트 문제해결을 위해 선호도 전과를 적용한 위치기반 웹서비스 QoS 예측'이다.

이 연구는 '소프트웨어 중심 시스템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정량적 품질 예측 및 평가 기법 연구과제(연구책임자 카이스트 백종문 교수)'의 지원으로 수행했다.

이를 통해 류 교수는 웹서비스 품질 예측에서 예측 성능을 좌우하는 과거 품질데이터가 매우 희박할 경우(콜드스타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호 전과 방법(LMF-IP)을 사용하는 위치 기반

행렬 분해기법을 제안했다. LMF-IP는 호출과 이웃 유사도를 융합하고, 융합된 유사도는 선호도 전과에 의해 활용된다.

특히, 웹 스타트 환경뿐만 아니라 콜드 스타트 환경에서도 기존 최신 기법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 웹서비스의 품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류덕산 교수는 "소프트웨어공학을 주제로 한 연구로,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돼 기쁘다"며 "소프트웨어의 기능구현에 비해 품질보증에 대한 관심도가 적은 것이 현실인데, 이번 성과를 통해 소프트웨어공학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류덕산 교수는 소프트웨어공학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SE4AI, AI4SE, 인공지능기반 소프트웨어분석, 소프트웨어결함예측, 소프트웨어신뢰성, 소프트웨어메트릭스,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등이다. /정은성 기자

이랜드-전주대 산학협력 교육 BESTar 프로그램 21기 수료식

경영학과 2명 등 총 22명 수강
우수 프로젝트 발표·수료식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5일 이랜드(회장 박성수)와 공동으로 10년째 진행하는 BESTar 프로그램 21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12학년도에 기업과 대학이 함께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기업우수인재육성과정'(3학점)을 개설해 이랜드 임직원들이 직접 강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왔다.

강의 주제는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부터 프로젝트 수행의 의미와 원리, 그리고 외식·호텔·패션산업 현장에서의 문제해결 방법까지 다양하게 다뤄졌다.

강사로는 이랜드그룹 계열사 (주)이앤씨월드 우상배 대표, 이랜드 인재원 김용재 상무 외 이랜드건설 이재욱 팀장, 켄싱턴월드F&B 조성우 부부장, 이랜드리테일 한민정 팀장과 김시영 팀장, 이랜드리테일 재무 조훈현 팀장, NC WAVE 광주점 고재은 지점장, 켄싱턴리조트 충주 변종원 총지배인 등이 함께했다.

특히 본교 동문인 (주)이앤씨월드 우상배 대표는 학생들에게 생생한 비즈니스 현장과 전설의 서비스 경영기법을 들려줬으며, 비스타 프로그램을 통해 이랜드그룹에서 근무 중인 이랜드파크(호텔법인)의 유수인 파트장은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3~4학년 후배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공유하며 멘토가 돼 줬다.

이번 비스타 21기 수강생은 경영학



과 2명, 물류무역학과 4명, 외식산업학과 2명, 패션산업학과 7명, 호텔경영학과 2명, 행정학과 1명, 영화방송학과 1명, 물리치료학과 1명, 산업디자인학과 1명, 경기지도학과 1명 총 22명이다.

이날 우수 프로젝트 발표 및 수료식이 열렸다. 최우성팀 NEW BALANCE NC웨브 전주객사점의 매출 UP(김선정 김해빈 이윤서 장예진)과 우수팀 '피자몰 NC 전주점 메뉴구성 개선을 통한 네이버 평점 4.5 추진방향'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상행 학생취업처장은 "비스타 프로그램은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기업형 비즈니스 인재를 양성하는 모범적 프로그램"이라며 "지난 10년간의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로 질 높은 취업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비스타 21기 수료생인 김선정(패션산업학과)은 "패션산업학과 전공수업에서도 팀플레이의 경험이 있지만 이번 비스타 수업에서는 현장을 기반으로 고객의 관점에서 문제를 도출하고 솔루션을 제시했다"며 "이랜드 팀장님으로부터 직접 피드백도 받게 돼 취업 후 비즈니스 현장에서의 문제해결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 16일 군산대학교 본부 소회의실에서 국립부경대학교와 교육 및 연구분야 상호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국립군산대-국립부경대

'세계 속 대학' 성장 위해 상호 협력 인프라 구축

공동교육과정 운영·학점 교류 위한 협약 체결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 16일 군산대학교 본부 소회의실에서 국립부경대학교와 교육 및 연구분야 상호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양 대학이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상호 파트너십을 나누며 세계 속의 대학으로 성장 및 발전하기 위한 것.

협약의 세부 사항은 △교직원 및 연구 인력의 상호 교류 △공동교육과정 운영,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생교류 및 상호 학점 인정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 공동 개최 △실험실습 및 연구기기, 시설물 공동 사용 △공유 및 협력 생태계 조성 위한 국책사업 등에서의

협력이다.

군산대학교와 부경대학교는 특히 지역 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분야 관련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군산과 부산, 바다와 인접한 양 대학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공동교육과정을 개발해 창의맞춤형 우수인재들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부경대 정영수 총장과 군산대 이장호 총장, 엄기욱 학생처장, 조수근 해양생물자원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이장호 총장은 "국가중심대학인 양교가 긴밀하게 협력해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등 시대흐름을 반영한 공동교

육과정을 운영하며 함께 성장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수 총장은 "군산대학교와 부경대학교는 같은 국가중심대학이고 지리적으로도 유사점이 많이 있으므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이템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 나가자"고 말했다.

부경대학교와 군산대학교는 국가중심국립대학 신학협력벨트(K7U) 협의체 소속으로 함께 활동해온 데 이어,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현장연계 미래선도인재양성 지원사업'에 컨소시엄을 꾸려 선정되는 등 교류 협력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군산=김판곤 기자

로컬창조커뮤니티 기반 조성 '맞손'

전주대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경진원·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도내 기관들과 협약 체결



전주대학교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주시사회혁신센터와 전북 로컬 창조커뮤니티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약속했다.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한동승 집행위원장은 "참여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전북 지역 내 로컬 창조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주도해 발굴하고 민간·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해결해나가는 민·관·공 협업체계로 새로운 지역사회 문제해결 모델이다. 전북도에서는 올해 8월 출범해 15개의 의제를 추진한 바 있다.

/정은성기자



우석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지난 15일 제주관광대 LINC 3.0 사업단과 스마트관광 ICC 성과공유 포럼을 개최했다.

지역 스마트관광 구축·관광 생태계 구현 방안 모색

우석대, '스마트관광 ICC' 성과공유 포럼 개최

우석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지난 15일 제주관광대 LINC 3.0 사업단과 스마트관광 ICC 성과공유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제주관광대 초운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포럼에는 양 대학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 지역의 스마트관광 구축과 관광 생태계 구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김순화 스마트관광ICC 센터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규모 단위의 개별 관광 여행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관광시장도 이를 반영한 상품 개발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2023~24년 한국 방문의 해를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

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노력과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LINC 3.0 사업단장은 "양 대학의 그간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우리 사업단은 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관광 콘텐츠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재 제주관광대 산학협력부단장은 "스마트관광 분야를 이끌어 갈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우석대학교 LINC 3.0 사업단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군산대 '학생 스스로 만드는

교양 교과목 공모전' 시상식

국립군산대학교 황용인재교육원(원장 주정훈)은 지난 15일 '학생 스스로 만드는 교양 교과목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올해 공모전에는 총 56개의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작화성·창의성·완성도·시의성·지속성 등을 기준으로 엄정 심사한 결과,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 등 모두 9개의 교양 교과목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기초 코딩교육을 통한 메타버스 실습(경영학과 서준영), 우수상에는 △메타버스와 함께하는 AR·VR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오유빈), △인공지능과 윤리(간호학과 방해빈), △에너지 전환과 갈등(경영학과 신동민), 장려상에는 △재난의 이해와 예방(사회복지학과 김민철), △빅데이터를 통한 자기역량(수학과 김다은), △기업과 사회적경제(사회복지학과 조세림), △자연과 인문 지리의 이해(경영학과 권기현), △생활 속에서 배우는 과학 실험(동아시아학부 김미진)이 선정됐다.

/군산=김판곤기자